

뮤지컬 '콩쥐팥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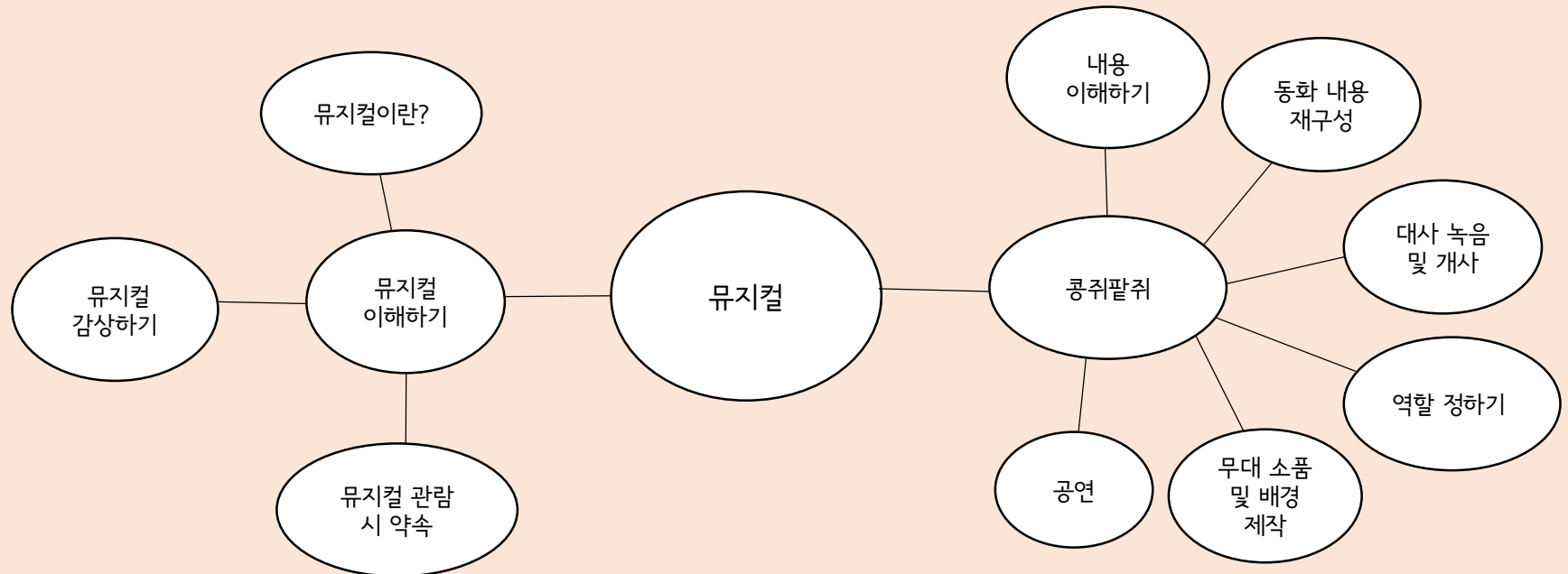


2021.05.24.~2021.07.02.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의 '콩쥐팥쥐' 뮤지컬

'뮤지컬'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자신감 있고 표현력이 좋은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각자의 역할을 정해 역할 놀이를 즐겨합니다. '나비' 주제 놀이 활동 후 관련 노래를 개사하며 부르거나 간단한 극놀이를 공연하고, 또래의 공연을 감상하는 놀이가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뮤지컬'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05.24. ~ 07.02.)



슬기튼튼 2반 극장이 열렸어요~

"이제 공연이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말 지낸 이야기를 통해 친구가 다녀온 '극장'에 관심을 보인 친구들은 미술영역에서 메뉴판, 티켓 등 극장에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어 극장을 구성하고, 극장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역할을 정해 놀이하였습니다.



뮤지컬을 감상해요

"우리도 뮤지컬을 하고 싶어요!"

극장에 갔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놀이보다 더 체계화된 극장을 구성하고 공연을 관람했어요.
그러던 중 우리도 다 함께 공연을 준비해서 우리의 공연으로 극놀이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답니다.



티켓 하나만
주세요~



뮤지컬을 관람하기 전, 매표소에서 뮤지컬을 보기 위해 필요한 티켓을 받은 후 매표점으로 이동하여 팝콘도 받으며 즐겁게 극장 놀이를 하였습니다.

팝콘으로
교환하러
왔어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펼쳐보자!



뮤지컬 주제를 선정해요

“우리 어떤 뮤지컬을 할까?”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은 어떤 주제의 뮤지컬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들과 유치원에서 생활하면서 지켜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양보, 배려, 도움 등의 내용이 담긴 여러가지 그림책을 감상 한 후, 투표를 통해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콩쥐팥쥐, 흑부리 영감, 황금 사슴, 흥부와 놀부의 그림책 등이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책이 선정 되었을까요?



그림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며 각자의 생각을 발표를 통해 이야기하여 21명 중 16명이 선택한 '콩쥐팥쥐'가 뮤지컬 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콩쥐팥쥐' 그림책 재구성



"콩쥐와 팥쥐가 무도회장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어 본 '콩쥐팥쥐' 그림책의 내용을 다시 회상하며 아이들은 "저는 팥쥐가 착했으면 좋겠어요.", "콩쥐랑 팥쥐가 무도회장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라며 그림책 속에 아이들의 생각을 넣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림책의 내용 중 우리가 재구성하고 싶은 부분을 골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여 의견을 나누고, 슬기튼튼 2반 친구들 모두의 생각이 들어간 다섯컷의 짧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콩쥐팥쥐'에 어울리는 배경을 그려요~

"'콩쥐팥쥐' 뮤지컬 배경을 어떻게 꾸밀까?"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재구성하여 벽면에 게시한 '콩쥐팥쥐'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에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라며 배경을 꾸며 주기로 하였습니다. 크기의 제한이 있는 종이가 아닌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창문에 그림을 그리며 놀이하였습니다. 이야기에 어울리는 배경을 그려주며 '콩쥐팥쥐' 뮤지컬 배경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콩쥐와
팥쥐 집을
그리고 있어요~



뮤지컬 소품 및 배경 만들기

“우리 공연 소품 및 배경을 만들어보자!”

아이들과 함께 복도 창문에 그려보았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콩쥐팥쥐전’ 뮤지컬 배경도 함께 만들어 보기로 하여 벽면에 설치할 대형 공동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콩쥐와 팥쥐가 사는 초가집과 옛날 느낌을 줄 수 있는 소나무, 그리고 극놀이에 필요한 역할 머리띠, 향아리, 버 발 등의 소품도 제작했어요.



완성하면 어떤 모습일까?



역할 정하기

“저는 콩쥐 역할이 하고 싶어요!”

‘콩쥐팥쥐’에 등장하는 인물 중 아이들이 희망하는 역할의 대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여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앞에서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연습한 것들을 멋지게 뽐내어 주며 오디션을 통해 슬기튼튼 2반 친구들 모두에게 어울리는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될까?

각자가 희망하는 역할의 대사를 연습하여 멋지게 보여준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LET'S GO~
LET'S GO !



뮤지컬 연습 및 준비

열심히 연습한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의 특징을 잘 살려 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새엄마처럼 단호하게 말할래요!”

오디션을 통해 정해진 각자가 맡은 인물을 파악하며 정확하게 대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며 녹음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뮤지컬 내용에 알맞은 가사로 바꾸어 율동도 함께 만들어보며 우리들의 뮤지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우리가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러보며
가사에 알맞은 율동도 직접 만들어
연습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도우며~



슬기튼튼 2반의 '콩쥐팥쥐전'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그건 식은죽
먹기지!

뮤지컬을 준비하며 슬기튼튼 2반 친구들 모두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콩쥐와 팥쥐처럼 서로에게
의지하여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의 부임을
축하 해주다니...



뮤지컬 '콩쥐팥쥐전'을 마무리하며...

아이들 모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친구들과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친구들과 유치원에서 생활하면서 생기는 작은 오해들도 슬기롭게 풀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